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여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낮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사4:29-30)

발행인·박혜영 편집인·박혜숙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11-1 전화·02-2650-5703~4 팩스·02-2653-8891 제 20 호 <2009. 06>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0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경쟁률 2.74대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6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모집한 2010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접수 결과, 총 46명 모집에 126명(일반전형 총 42명 모집에 121명, 특별전형 총 4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하여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수시모집 경쟁률 결과와 관련해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올해 수시모집에서부터 새로이 실시하는 필답고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여학생들이 여성교육의 요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갖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다”며 “우리 의학전문대학원은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졸업생들이 세계의료계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시모집 1차 합격자는 오는 7월 29일(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5일(토) 심층구술면접 및 필답고사를 실시한 후 10월 7일(수)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졸업 50주년 · 3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5월 31일 이화여자대학교 창립기념일을 맞아 의과대학에서는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5월 29일 오후 7시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동

창, 교수,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김혜순 교수의 기도로 시작하여 박혜영 의과대학장 인사말씀, 김태임 동창회장 인사말씀, 30주년 동창 김정혜대표 말씀 등으로 이어졌다. 학교에서 특별히 마련한 기념품 전달식, 의학전문대학원 화경량, EMO의 축하 연주 순서도 마련되었으며 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동영상도 상영되었다. 식후에는 신설된 여성암전문병원 등 투어 시간이 준비되었으며 저녁 만찬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한편 50주년 동창들은 이에 앞선 27일 신촌 본교에서 안정자 교수의 기도로 시작하여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씀이 이어졌고 이화여대 홍보영상 상영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 후 기념 촬영을 했으며, 이화역사관, ECCL대부, 박물관등을 투어 하였다.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동창들은 “학교를 돌아보며 그동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쌓은 업적과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후배들의 대학생활을 지켜보며 과거의 대학생시절을 회고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후에, 8회 동기 모임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일천만원을 기증하였다.

◆ 이화해외의료봉사단, 2009년 하계 의료봉사 발대식 개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9일 이화여대 의학관 A동 212호에서 2009년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정구영 단장의 2006년 이후 실시해온 우즈베키스탄 하계 의료봉사 경과보고, 김양우 이대목동병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의료가기 전문업체인 휴메디의 자동 혈압 측정기기 후원과 간호부의 의료용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번 2009년 하계 의료봉사단은 응급의학과 정구영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흉부외과 한재진 교수, 혈액종양내과 문영철 교수를 비롯한 전공의, 간호사, 이화여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참석했다. 7월 10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의대에서 강의와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우르겐치 의대 인근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네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재개발 국가에서 연 2차례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활발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특별시사회로부터 ‘한미창의의료인상’을 받았다.

◆ 임상교육 교수방법론 워크숍 개최



2009년 6월 19일(금) 오후 5시30분 의학관 B동 908호 강의실에서 임상교육 교수방법론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 진행되는 임상실습의 현황을 점검하고, 임상실습교육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총 62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임상실습 현장보고, 핵심임상실습 책임교수의 발표 및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국시실기시험과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발표와, 포트폴리오방법과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이후 이순남 전 대학원장이 전체 토론의 좌장을 맡아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워크숍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및 일반인을 위한 BLS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과정 및 일반인을 위한 BLS 과정을 개최하였다. 2009년 5월 23일(토), 6월 27일(토) 2차례의 의료인을 위한 BLS 과정 개최하여 47명의 BLS-HCP(Health Care Provider)를 배출하였고, 2009년 4월 9일(금)부터 6월 22일(월)까지 총 7회의 BLS 일반인 과정을 개최하였고 8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다. 의료인 교육과정은 2005 AHA Guideline에 의해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AHA에서 제작한 DVD를 이용한 실습으로 이루어지며, Provider 과정 교육 참여 후 당일 시행되는 3회의 Skill test와 1회의 Writtentest에 합격한 교육생에 한해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미국심장협회)에서 인증하는 영문자격증이 발급된다.

일반인 교육과정은 AHA BLS Instructor에 의하여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서 슬라이드 강의와 개인 마네킹을 이용한 DVD 비디오 실습, 그리고 질문과 토의로 이루어지며, 교육 후에는 실기시험 후,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시행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관하는 초등학교 1,000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18일(화)부터 2009년 5월 18일(월)까지 인근 12개 초등학교 14개 학급에 강사(instructor)를 파견하여 심폐소생술 수업을 진행하였다. 생명보험협회 공익사업단의 재정 후원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Anytime CPR kit(Mini Anne)를 이용하여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할 수 있게 하며 실습 후에는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하나씩 제공된다.

* 학생 및 교수 소식

1. 학생 소식

◆체육대회



지난 6월 6일, 목동 경인 초등학교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의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41대 학생회가 주최하고, M1 대외협력부, M2 예능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체육대회는 M1, M2학생 약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이홍수 학생부원장, 양현종 교수, 최수승 교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6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날씨였지만, 학생들 모두 즐겁게 체육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체 줄넘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짝피구, 계주 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팀워크를 통해 동기간의

우애도 돈독히 할 수 있었다. 단체 줄넘기에서 맨발투혼, 도내 계주대회 3위를 자랑하는 스피더, 작년 이어 짝피구를 빛내준 여러 친구들을 비롯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으니, 2학기 개강 후에 있을 '체육대회 사진 MVP뽑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휴게 공간 확충



의학관 B동 강의실 앞과 6, 10층 매점이 달라졌다.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었다. 편리함을 위해 42대 학생회에서 휴게 공간 마련안을 건의하여 학교 지원으로 6층 기존 테이블 옆 파티션 설치, 6층 매점에 테이블과 소파 마련, 전 학년 교실 앞 테이블과 소파 마련 및 벽거울 설치, 10층 매점에 테이블과 소파를 설치했다.

2. 교수동정

◆소아과 홍영미 교수팀 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수상



소아과 홍영미 교수팀은 2009년 3월 28일 소아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Gene expression of Caspase-3 in Monocrotaline-induced pulmonary hypertension rat model"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상을 받았다. 또한 2009년도 6월 21-26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Cairns에서 열린 세계 소아심장학회에서 "폐동맥 고혈압"에 관한 연제를 발표하였다.

2009년도 학술진흥재단 우수과학자 3년 과제가 선정되어 폐동맥 고혈압에 관한 기초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은희 교수,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



하은희 교수는 20년 이상 환경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우수한 연구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환경 보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 환경 보전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국내 환경 정책의 개선에 대한 노력에도 앞장서 국민의 환경 보전 향상에 중대한 건인차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1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보전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기환 교수,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한국의학원 기초의학자 학술상 수상



해부학교실 한기환 교수는 지난 4월 23일 아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7회 기초의학학술대회에서 한국의학원 기초의학자 학술상(젊은 기초의학자)을 수상하였다. 또 5월 16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 29차 대한신장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였다. 한기환 교수는 신장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Marquis Who'sWho in the World", "Marquis Who'sWho in Medicine & Healthcare"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윤하나 교수, 남성과학회 학술대회 및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기초우수논문상 수상



비뇨기과학교실 윤하나 교수가 지난 4월 가톨릭의대 강남 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제26차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 및 제 9차 대한여성성건강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초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김규현 씨와 공동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백서 음경조직의 Rho-kinase 및 Nitric Oxide Synthase의 발현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스트레스가 발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다.

우리나라 최초 비뇨기과 여성 의사로 유명한 윤하나 교수는 여성 배뇨장애 및 성기능 장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 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SCI논문과 국내 논문을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학지식에 기반한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저작활동과 언론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의료원 동정

◆ 이화의료원,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병원 선정

올해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기업 선정은 여성신문사가 여론 전문기관인 오즈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품질·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직접 평가와 라이프스타일 조사, 선정 위원회의 최종 심사와 여성부의 확인을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이화의료원이 여성암 전문병원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1887년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한 이후 국내 유일 여자학과대학 부속 병원으로서 여성 교육, 연구, 진료를 선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여성암 진단 및 치료,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대여성 암전문병원과 여성검진센터, 여성암연구소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여성 암 예방과 치료, 연구에 앞장서온 점이 주효했다.

이율터 병원을 방문한 당일에 모든 진료, 검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와 3차 진료기관 최초로 암 진단 후 1주일 이내 수술을 시행하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등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차별화된 고객만족 진료 시스템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 이학여대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17회 중외박애상 수상

서현숙 의료원장은 2003년부터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탈북자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3만여명에게 지속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외박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원장은 1973년 이학여대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 전문의를 취득한 이래 30여년 동안 환자들의 치료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외에도 여성질환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해왔다. 국내 최초로 이대목동병원에 유방센터를 만들었으며, '이유회'라는 유방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며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남녀의 성차이를 고려해 연구하고 진료하는 성인지 의학(Gender Specific Medicine)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초대 한국성인

지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2008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성인지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 성인지 의학 연구 및 진료를 주도해 여성질환의 근본적 치료방법을 모색해 왔다.

◆ 이대여성암전문병원 개원 기념 음악회 개최

이화의료원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이대목동병원 의학관 김옥길홀에서 이대여성암전문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일 개원한 이대여성암전문병원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오르가니스트 의학전문대학원생 양내리학생의 연주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에 재학중인 이상욱 씨의 피아노 연주와 독일 맨하임(Mannheim) 국립음대 기악과를 졸업한 방효섭 씨의 첼로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동창회 소식

◆ 200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지난 4월14일 오후7시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0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제17대 김태임회장의 주재로 50명의 이사가 참가해 개최되었다.

사랑을 나누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려는 김태임회장의 “백분의 일의 나눔” 장학금모금사업 설명과 기존의 학술연구재단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열띤 토론 끝에 통과되었으며 앞으로 여러 군데로 나뉜 동창회 재정관리가 한곳으로 모이게 될 전망이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 동기회장 및 전국지역구회장 정기회의



지난 6월 30일 오후 7시에 제3차 동기회장 및 전국 지역구회장 정기회의를 서초대원에서 개최하였다.

10회 권태희 동문부터 42회 백세연 동문까지 33명이 참석하였으며 오혜숙 총무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 되었는데 우선 사회자의 식전 기도가 있었으며 그 후 맛있는 식사를 하였고, 시종일관 선후배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식사 후에 김태임 회장이 올해의 역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사업에는 동창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동창회 모임의 활성화와 젊은 동창들의 화합과 참여를 위한 영포럼을 만들고 “백분의 일” 나눔 장학금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정례적 모임인 역사유적 답사를 가을에 할 예정이며 송년회가 12월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스포츠동호회도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창들 집안의 혼기 자녀들을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중매사업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공감하는 동문들이 많았다. 오혜숙 총무는 홈페이지인 ewhand.net의 활성화와 7월 5일에 있을 사진동호회인 이포사의 관곡지모임 참여를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태임 회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백분의 일 나눔 운동에 꼭 참여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10시경에 폐회하였다.

* 해외교류보고

한국에서의 임상 실습은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좋은 밑거름



왼쪽부터 Nuyen Thi Ngoc Minh, Phi Thuy Linh, 박보람학생

본교와 국제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 의과대학에서 지난 6월 15일 두 학생이 4주간의 임상 실습(Elective Clerkship Program)을 위해 한국에 왔다. 현재 하노이 의과대학 본과3학년인 두 학생, Phi Thuy Linh 과 Nuyen Thi Ngoc Minh은 6

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피부과(1주), 순환기내과(2주), 가정의학과&정형외과(1주)에서 임상실습을 하였다.

Q: 하노이 의과대학에서의 해외 실습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우선 기본적인 지원 자격 조건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어야 하고, 학업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들어야 합니다. 지원한 뒤에는 교수님과 면접을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선발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번 선발에는 몇 명의 학생이 지원했나요?

A: 이번 한국 임상 실습 지원은 13명이 했고, 교수님과의 면접 및 서류 전형 점수를 다 합하여 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Q: 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가 한국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A: 하노이 의과대학은 현재 스위스와 호주의 의과대학과도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을 택한 이유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나 보게 될 환자들이 세 국가 중 (스위스, 호주, 한국) 베트남과 가장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한국에서의 실습이 베트남에서의 의학 교육과 다른 점이 있다면?

A: 저희 생각으로는 세가지정도가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첫째로, 베트남에서는 오전에는 병원 실습을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한국은 하루 종일 실습을 하는 스케줄이라서 병원에서 보고 배울 시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중간 중간에 있는 교수님들의 TEACHING 시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만 모아놓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시간이 많아 좋았습니다.

둘째는 베트남에서는 임상실습의 대부분이 환자와 만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의료인이 의대 학생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에게 문진 및 신체 검진을 의대학생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서 최신 시술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직접 보지 못했던 시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Coronary artery에 Stent insertion하는 것은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흔히 이루어지는 시술이었습니다.

Q: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A: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저희가 묵고 있는 국제 기숙사는 학생들의 편의를 많이 배려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도 매우 깨끗하고, 컴퓨터실/식당/체육 단련실 등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관련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Q: 한국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땠나요?

A: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습니. 우선 베트남과 한국의 영어 억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서로 이야기해도 억양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영어교과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영어로 실습을 돌 때, 모르는 영어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몰랐던 의학 영어를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준 점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실습 과정을 영어로 바꾸어주셔서 저희는 매우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과에서도 교수님들과 실습을 도는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모두 영어를 사용해주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한국 실습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를 든다면?

Linh: 인상 깊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말씀과 최신 의학 지식들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편육법 교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해주신 말씀 중 "의학은 철저한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고 행위이다"란 대목이 기억납니다. 제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irh: 저는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활동적이고 열정에 넘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일하는 의사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매우 열정적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김치를 참 좋아하던데, 저는 한국인들의 에너지가 그 김치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웃음)

Q: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Mirh: 저는 실력과 지식을 갖추고, 환자에게 헌신적인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최상의 조건과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실습은 제가 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마인드를 갖도록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원하는 의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er: 의학전문대학원 M3 박보람—

♣ 알려드립니다 ♣

⑥소식지 원고모집

-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 내 의과대학소식 / 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이화의료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